

장자(莊子)의 구절과 예당 전병순의 서예, 그리고 한수의 절구

한시·글운호 이진호
서예 예당 전병순

○ 澹靜(담정) · 무위의 하늘 아래서 ○

한 폭의 족자가 전해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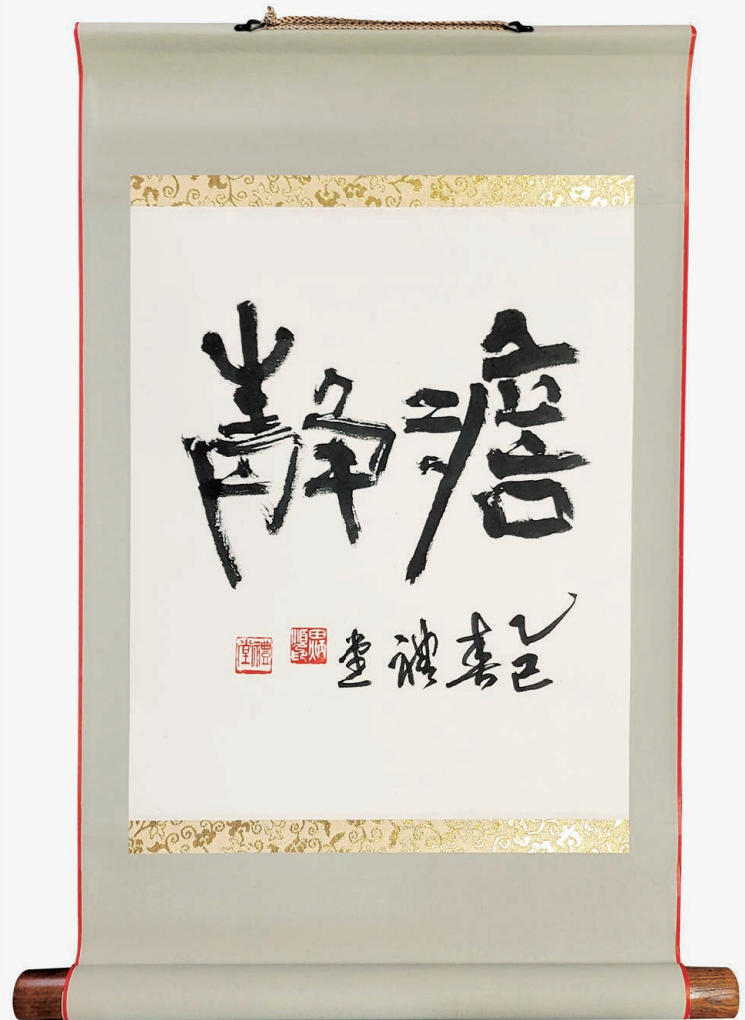
한 통의 족자가 내 손에 도착했습니다. 펼쳐 보니, 회색 비단 위에 금박 위전을 두르고 그 중앙에 두 글자가 힘차게 놓여 있습니다. 「澹靜」. 예당 전병순 선생의 붓끝에서 태어난 예서 작품이었지요. 처음 마주한 순간,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숨결로 다가왔습니다. 맑을 담(澹), 고요할 정(靜). 이 두 글자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풍경은 곧바로 장자의 한 구절을 불러냈습니다.

“嘗相與無為乎! 澹澹而靜乎! 漠而清乎!

調而閑乎!”(莊子 外篇·知北游 발췌)

(일찍이 함께 무위의 경지에 있지 않았던가!
담담하고 고요하며, 아득하고 맑고, 고르게
한가롭지 않았던가!)

무하유의 궁에서 함께 무위하며, 담담하고 고요하고, 아득히 맑으며, 한가로이 조화로운 경지를 노래한 장자의 문장이, 바로 이 두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無何有之宮(무하유지궁)

출전	『장자(莊子)』외편 「應帝王」, 「知北遊」 등에서 등장.
지역	“아무것도 없는 것[無何有]의 궁전[宮]”
의미	세속적 가치나 목적, 소유, 이름과 이익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의 공간. 장자가 상정한 이상적 세계.
철학적 함의	無爲自然 — 인위적 구속을 떠난 본연의 삶. 超越의 場 — 생사·귀천·선악을 가르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 그러한 상태. 心齋와 坐忘 — 마음을 비우고 망각하여 도(道)와 하나가 되는 경지. 무하유궁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사유와 영혼이 거닐 수 있는 비가시적 공간입니다. 장자가 말한 ‘至人(지인)’과 ‘神人(신인)’이 노니는 자리이며, 현실적 조건을 초월한 궁극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서체와 글자의 울림

예서(隸書)는 秦漢시대를 대표하는 서체입니다. 전서의 부드러운 곡선에서 뿌리를 이어받았지만, 직선과 파책(波磔)으로 힘을 부여하며 ‘문자의 삶’을 단단히 세운 글씨이지요.

예당의 「澹靜」은 이 고유의 법도를 따르면서도 현대적 호흡을 품고 있습니다.

澹

삼수변은 절제된 필획으로 그려져 과장 없이 물결의 고요를 담아내고, 覃의 구조는 획 사이의 공간을 넉넉히 두어 숨 쉬는 듯한 여백을 남겼습니다.

靜

정(靑)과 爭의 결구가 안정되면서도 필압의 완급이 있어 멈춤 속에서 살아 있는 기운을 보여줍니다.

두 글자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끌어당기듯 어우러집니다. 붉은 족자 테두리와 금박 전은 차가운 고요 속에 체온을 불어넣듯 미묘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서예가 단순한 글자의 기록이 아니라 정신의 형상화라면, 예당의 「澹靜」은 담박함이 허무로 떨어지지 않고, 고요함이 무기력으로 흐르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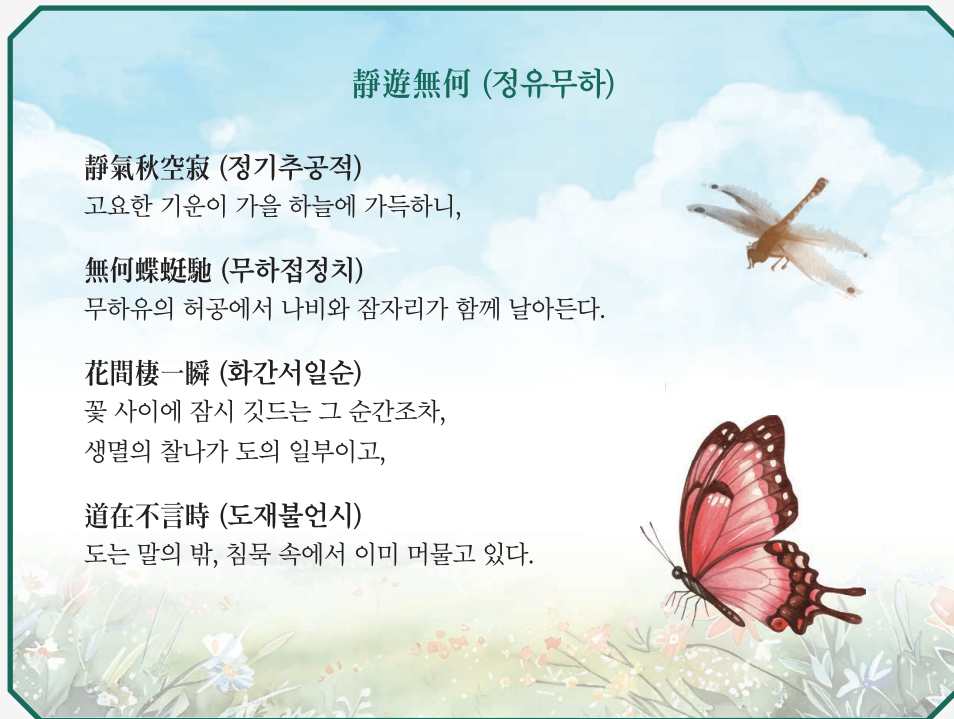
隸書(예서)

기원	진(秦) 말~한(漢) 초에 등장. 전서(篆書)의 복잡한 곡선을 단순화하여 실용적으로 변형한 서체.
특징	평평하고 길게 누는 획 — “평사평역(平沙平易)”이라 하여 안정적이고 넓은 인상을 줌. 파책(波磔)의 장식 — 가로획 끝이 갈매기 날개처럼 퍼지며 리듬감을 형성. 결구의 정제 — 전서의 원형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가독성이 뛰어나 문서·비문에 널리 사용됨.
역사적 의의	한나라 때 공식 서체로 확립되며, “예비(隸碑)”라 불리는 비문들이 대량으로 세워짐. 후대의 해서(楷書) 발전에 직접적인 토대가 됨.
미학적 의미	단정하면서도 리듬 있는 조형미. 장중함 속에 소박한 아름다움이 공존하여, 도가적 담박함(澹)·고요함(靜)과도 깊이 통한다. 예서는 단순히 옛 서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자미학의 중추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며, 작품 속 ‘澹靜’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울리게 하는 서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가을의 정경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파란 하늘, 그 아래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잎, 그리고 그 위에 한 치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는 잠자리. 고요 속의 생명, 정적 속의 떨림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시심이 일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충만함이 언어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자의 문장이 그러했듯, 「澹靜」 앞에 선 나 또한 말을 덜어내면서 오히려 새로운 언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수의 절구가 태어났습니다.

《靜遊無何》와 주석

❀ 원문과 독음



❀ 각 구의 해석과 철학적 의미

1구 : 靜氣秋空寂

- 가을 하늘에 고요한 기운이 가득하다. 자연의 적막은 곧 도(道)의 본체와도 같다.

2구 : 無何蝶蜓馳

- 무하유의 허공에서 나비와 잠자리가 함께 날아든다. 만물이 차별 없이 어울리며, 존재와 존재가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

3구 : 花間棲一瞬

- 꽃 사이에 잠시 깃드는 그 순간, 모든 생멸의 찰나가 곧 도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장자가 말한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사유가 담긴다.

4구 : 道在不言時

- 도는 말의 바깥, 침묵 속에서 이미 현전한다.
말 없는 교화(不言之教), 바로 장자의 결론이다.

한시 형식에 대하여

이 작품 《靜遊無何》는 오언절구(五言絶句), 그 가운데에서도 측기식(仄起式) 절구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오언절구는 다섯 자의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가장 간결한 시형으로, 唐代 이래 시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 본 작품은 첫 구 두 번째 글자가 “靜氣秋空寂” 측성(仄聲)임으로, ‘측기식’의 격을 따랐습니다.

* 압운은 평수운(平水韻) 支(지)부의 「馳」「時」를 사용하여 정격에 맞췄습니다.

짧은 네 구 속에 자연과 철학, 장자의 무위 사상이 함축되어 있어, 唐詩의 격식과 도가적 사유가 현대적으로 만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위와 서예, 그리고 시

唐詩 주석처럼 한 구마다 되새겨 보니, 시는 곧 서예의 해설이자 장자의 사유에 대한 답가가 됩니다. 서예에서 흰 여백이 획과 어울려 하나의 호흡을 이루듯, 시에서도 말과 침묵이 어울려 하나의 의미를 빚어냅니다. 「澹靜」의 획과 획 사이, 공백 속에서 이미 시가 자라나 있었던 셈입니다.

서예와 시가 다다른 곳은 같습니다. 더하려는 욕망을 털어내고, 소란을 걷어내어, 남은 자리에서 비로소 충만을 얻는 길. 그것이 장자가 말한 무위의 경지요, 예당이 붓끝으로 새겨낸 澹靜의 세계이며, 내가 절구로 옮겨본 사유의 길입니다.

맺음

봄이 고양이의 부드러움으로 계절을 열었다면, 여름이 개의 숨결 속에서 더위를 견디듯, 가을은 이렇게 澹靜의 하늘로 내려앉습니다. 예당 전병순 선생의 서예 한 폭은, 계절의 무게를 이겨내는 또 하나의 언어였고, 나의 절구 한 수는 그 울림에 화답한 작은 메아리였습니다.

서예작품을 바라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시를 적어보는 일. 그것이 곧 무하유의 궁을 거니는 일이자, 지금 우리가 함께 무위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한시·글 윤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예당 전병순(禮堂 田炳順)

- 경기미술대전 초대작가
- 국서련 전국회화대회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한마당 초대작가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 문인화 교육 강사 1급